李堣의 『松齋先生文集』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ngjae Seonsaeing Munjip*,
the Collection of Songjae's Works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1. 서 론
2. 李堣와 吳澐의 관계
 2.1 李堣의 생애
 2.2 오운과의 관계
 2.3 오운과 정탁
3. 「松齋詩集」의 간행
 3.1 간행 경위
 3.2 체재 및 구성
4. 「松齋先生文集」의 간행
 4.1 간행 경위
 4.2 체재 및 구성
5.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본고는 『松齋先生文集』을 검토하여 이 도서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 도서의 간행을 주도했던 竹牖 吳澐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松齋詩集』은 이우의 시집으로 이우의 조카인 退溪 李滉이 수습하여 손수 淨寫한 원본을 이우가 충주목사로 재직할 때 간행하였다. 오운은 도서를 애호하여 여러 저술과 편찬서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松齋詩集』의 인쇄상태를 검토해 보면 권1과 권2는 이황의 필체 그대로 판각하였으나 습유와 부록은 판각이 조악하고 인쇄도 정밀하지 못하여 저술가의 규례에 맞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松齋詩集』은 오운의 간행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것은 이 도서가 오운이 본격적으로 간행한 첫 번째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오운은 이 시집의 간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도서편찬 및 출판자로서의 면모를 구비하게 된다. 후손인 이원로 등은 이우의 시문을 최대한 수합하여 속집을 편찬하고, 원집은 그대로 중간하여 『松齋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이 문집의 간행으로 인해 이우의 저술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어 전해지게 되었다. 그 바탕에 오운의 『松齋詩集』 간행이 있었음은 중요한 사실이다.

要語: 오운, 이우, 송재선생문집, 송재시집

---

* 이 논문은 2009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0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12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22일

www.kci.go.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ongjae Seonsaeng Munjip*, the Collection of Songjae's Work, and then to discuss the contribution of Oh Un who led its publication, in the history of printing culture. When Yi Wu was serving as a ministry of Chungju, Yi Hwang, his nephew, collected and transcribe his poems and then published them as *Songjae Sijip*. Oh Un, a book lover, had written and compiled many books.

In surveying the printing condition of So*ngjae Sijip*, we notice that Yi Hwang's handwriting was exactly engraved in volumes 1 and 2, but its supplements and appendices were so roughly engraved and printed as to unfit the norms of the writer. Nevertheless, So*ngjae Sijip* occupies very important position among Oh Un's compilations, since it was the very first publication which was compiled by Oh Un, and therefore made him the publisher and compiler in a serious sense.

Yi Wonno later collected his anscester Yi Woo's poetry as many as he could, compiled the sequel, and published them with the original as *Songjae Seonsaeng Munjip*. The publication of *Songjae Seonsaeng Munjip* enables complete works of Yi Woo to b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publication of *Songjae Sijip* by Oh Un on its base.

Key words: Oh Un, Yi Wu, *Collection of Song Jae's Works, Song Jae's Poetry*

www.kci.go.kr

1. 서 론

본고는 조선 중기의 주목할 만한 도서편찬자인 竹牖 吳澐(1540~1617)이 도서의 간행과 편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저술에 대한 일관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오운은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여러 지역의 지방관을 역임한 인물인데, 특히 도서를 애호하여 직접 저술한 도서도 상당수 있으며 여러 도서의 편찬과 간행에 참여하였다.

본고의 대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松齋 李堣(1469~1517)의 문집인 『松齋先生文集』인데 엄밀히 말하면 『松齋詩集』과 『續集』이다. 이 도서는 오운이 아니었다면 출간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오운은 45세 되던 해(1584, 甲申, 宣祖 17) 4월에 忠州牧使로 재직하던 중에 사재를 들여 『松齋詩集』을 간행하였다.[1] 저간의 사정을 同門受學했던 藥圃 鄭琢(1526~1605)의 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도서는 현재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데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에는 『松齋詩集』이라 소개되어 있다.[2] 여기서 명칭의 문제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 도서는 오운이 간행한 『松齋詩集』을 원본으로 하여 후손들이 1900(光武4)년에 남은 시문을 모아 續集을 간행한 것이 지금 전한다. 속집을 간행하면서 『松齋先生文集』이라 명명했고 표지에도 이와 같이 쓰여 전하므로 이를 이 도서의 명칭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

본고의 목적은 이 도서의 간행과정에서 오운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혀 도서편찬자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한편, 원집과 속집의 편찬 및 간행과정을 소상히 규명함에 있다.

---

1) 『竹牖全書』 <年譜>, 45歲 條.
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1, 『松齋詩集』 條.
3) 1937년에 간행된 別集이 있는데 이는 논외로 하고 다음의 원고를 기약한다.

www.kci.go.kr

2. 李堣와 吳澐의 관계

2.1 李堣의 생애

이우의 字는 明仲이고 號는 松齋이다. 이우는 眞寶(眞城)李氏로서 시조 李碩의 5대손이다. 李碩은 眞寶縣吏로서 司馬試에 합격은 하였으나 크게 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高祖 李子脩는 明書業 출신으로 通憲大夫 判典儀寺事에 이르렀는데, 공민왕 10년(1361) 그는 鄭世雲의 裨將으로 홍건적 토벌에 종군하여 수도를 회복한 공로로 安社功臣(二等)의 호를 하사받고 松安君에 봉해졌다. 다음 曾祖인 李云侯는 中訓大夫 軍資寺副正이었으며 祖 李禎은 中直大夫 善山府使였다. 父 李繼陽은 進士試 출신이었으나 현직의 경력은 없다. 이계양은 李塤(1463~1502)과 李堣를 두었는데 이식도 진사시 출신이었으나 관직을 역임한 경력이 없다. 이식은 8남매를 두었는데 막내아들이 한국 유학의 태두인 退溪 李滉(1501~1570)이니 이우가 이황의 숙부가 된다.

이우는 24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30세에 과거에 급제한 뒤에 관직생활이 순탄하여 호조참판, 강원도 관찰사, 안동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우의 생애에서 정치적 부침은 단 1회였다. 中宗反正이 일어났을 때 이우는 승정원 우부승지였다. 이우는 반정에 협조한 공으로 奮義靖國功臣에 책록되었다. 그런데 1514(甲戌, 당시 45세)년에 일부에서 이우가 반정에 공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하여 삭탈관직되었다.[4] 이우는 「自明疏」[5]를 올려 극력 해명하였다. 다음 해에 용서되어 안동부사로 부임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어 가선대부가 되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관직이었다.

이처럼 이우의 가계는 여말의 향리에서 출발하여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양반 가문의 입지를 확보해 갔는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이우와 조카 이황이었다. 이우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황과의 관계이다. 이황의

4) 「松齋先生文集」 卷2, 李滉 撰, 「叔父松齋先生年譜」. '甲戌 二月 言者捃摭反正日事 奪勳級.'
5) 「松齋先生文集」 卷2에 수록.

www.kci.go.kr

친부 이식은 이황이 태어난 다음 해에 돌아갔으니 이황이 부친에게 받은 교육은 전무할 것이다. 이황은 12세에 이우의 문하에 나아가 『論語』를 배움으로써 가학의 전통을 잇는 한편 대학자의 기틀을 닦았다.[6]

『松齋先生文集續集』 권1에는 이우가 이황 등의 문하생을 거느리고 兜溪의 盤石에서 유람하면서 지은 시를 수록해 놓았는데 이를 소개해 본다.[7]

『率兒輩遊兜溪盤石』

欲得溪山妙	시내와 산의 오묘함을 찾고자
松門獨自回	소나무 문에서 홀로 왔는데
淸吟還敗意	맑은 시 읊다가 도리어 생각을 망쳤으니
誰遣督郵來	누가 독우를 보냈던가

훗날 이황이 자신의 조카들을 데리고 이곳을 유람하다가 느낀 바가 있어 이우의 시에 次韻하여 지은 시가 있다. 이 시에는 幷序가 있어 배경을 알 수 있다.

『淸石吟』 幷序

퇴계의 하류 시냇가에 반석이 있다. 신미년에 숙부이신 송재 부군께서 강원감사를 지내시다가 근친하러 오셔서 뵙게 되었는데 반석에 유람하게 되었다. 나는 동자로 모시고 따랐다. 붉은 옷을 입은 관원이 와서 뵈었는데 곧 창악승이었다. 숙부께서 시를 짓기를 … (省略) … 라 했다. 지금 여러 형들의 조카와 여기에서 만나 옛 일을 추억하며 오래 감탄하다가 이에 그 바위를 청음석이라 하고 그 운을 써서 2수를 짓는다.

總角陪遊地	동자 시절 모시고 노닐던 곳
吟魂去不回	시 읊던 넋은 떠나고 돌아오지 않네
唯餘溪響石	오직 남은 시냇가의 메아리치는 바위는
似欲慰重來	다시 찾은 나를 위로하는 것 같네[8]

6) 『退溪集』 <年譜>, 12歲 條. '受論語于叔父松齋公堣.'
7) 『松齋先生文集續集』 卷1, 『率兒輩遊兜溪盤石』.
8) 『退溪集』 卷1, 『淸吟石』 幷序. '退溪下流 有盤石臨溪 辛未年中 叔父松齋府君 以江原監司來覲 出遊石上 滉以童子侍側 有紅衣官人來謁 乃昌樂丞也 叔父有詩曰 欲得溪山妙 松門獨自回 淸吟還敗意 誰遣督郵來 今與諸兄姪會此 追念前事 感歎久之 因名其石曰

www.kci.go.kr

이우가 이 시를 지은 것은 그의 나이 43세 되던 신미년(1511년)이었고 이황은 11세였다. 이우는 당시에 강원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부모를 뵈러 왔다가 이황과의 나들이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황이 그의 조카들과 이 바위를 찾은 것이 丁未年(1547)으로 추정되는데 당년 48세 때의 일이다. 이로 보면 이황은 40여 년 전의 감회에 젖어 바위의 이름을 숙부의 시에서 인용하여 淸吟石이라 명명하고 숙부의 시에 차운하여 오언절구 2수를 지었다.[9]

이우와 이황의 관계는 보통의 숙질사이로 한정할 수 없다. 이황은 위의 일이 있고난 다음 해, 곧 이우가 강원감사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하여 부모를 섬길 때부터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황은 후에 자신이 학문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은 숙부가 가르치고 독려한 결과라고 회상하였다.[10] 이로 보아 이황의 학문 형성에 이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우의 유고를 정리하고 친필로 서사하여 보관하였으므로 『松齋詩集』이 간행될 수 있었으니 이 시집이 현재까지 남아있게 된 데에는 이황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오운과의 관계

이우는 李時敏의 따님과 혼인하여 2녀1남을 두었고, 그중 둘째 따님이 吳彦毅에게 출가하였는데 이분이 오운의 祖母이시다. 그러므로 이우는 오운에게 外曾祖가 되는 셈이다. 이우의 사위이자 오운의 조부인 오언의는 이황과 교유하며 두 집안이 서로 관계가 깊었는데[11] 이 인연으로 오운이 이황의 문인이 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오운은 평생 이우를 존경하였다. 오운의 문집인 『竹牖先生文集』을 보면 『高靈小樓敬次外曾祖松齋李先生韻』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12] 제

淸吟石 用其韻二絶云.'

9) 『退溪集』 卷2에도 <淸吟石>이라는 제목으로 오언절구 1수가 있는데 위의 시와 같은 압운을 사용하고 있다.

10) 『松齋先生文集續集』 卷3, <附錄>, <遺事>. '文純公嘗曰 余之不惰於學 叔父敎督之力也.'

11) 허권수, "죽유 오운,"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 세계』 (도서출판 亦樂, 2007), 19.

12) 『竹牖先生文集』 卷1, <高靈小樓敬次外曾祖松齋李先生韻>. '人生七十古來稀 遼鶴頹波不復歸 殘雪亂峰征鴈盡 長天極浦落霞飛 江山聲畵珠輝壁 蓬梗殘支涕灑衣 六十一年環

www.kci.go.kr

목으로 보아 오운이 고령에 있는 한 누각에 가보니 마침 그곳에 이우가 지은 시가 있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것 같다. 시의 말미에 狹書雙行으로 오운이 이우의 시를 보고 차운하여 지은 때가 이우가 돌아간 지 61년이 되던 해라는 사실이 적혀 있다.[13] 그런데 이우가 지은 原詩는 『松齋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오운이 고령의 누각에 갔을 때는 이 시가 판각되어 걸려 있었지만, 후에 누각이 없어졌거나 이 시가 전해지지 않아 후손들이 續集을 간행할 때에는 찾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운은 이우의 족보인 『眞城李氏族譜序』를 지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우의 시가 격조가 높아 당시에 존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14]

이와 같이 오운이 평소에 품고 있던 이우에 대한 존경이 『松齋詩集』의 간행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이황의 문하에서 이 시집을 대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을 것이다.

2.3 오운과 정탁

오운이 이황의 문하에 나아간 것은 17세 되던 해였다.[15] 당시에 이황은 도산서원에서 강학할 때였다. 오운은 이황의 여러 제자들과 교유하면서 학문을 닦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황이 손수 필사한 이우의 시집이 있음을 들었고 후일에 기회가 되면 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뜻을 같이 하던 인물이 동문수학하던 藥圃 鄭琢이다.

정탁은 오운과 함께 이황과 南冥 曺植(1501～1572)의 양대 門下에서 수학한 인물로서 寒岡 鄭逑(1543～1620)와 16촌간이다. 정구도 兩門을 거친 학자로서[16] 함안군수로 부임했을 때 오운과 함께 咸安의 읍지인 『咸州誌』를 함께 편찬한 인물

舊甲 當時文士已無幾.'

13) 위의 책, 같은 곳. '松齋歿於正德丁丑 而今年適環丁丑 故云.'

14) 『竹牖先生文集』 卷3, <眞城李氏族譜序>. '至於松齋公 淸詩琴韻 秀流輩而推重.'

15) 『竹牖全書』 <年譜>, 17세 條.

16) 허권수, 위의 책, 28.

www.kci.go.kr

이다.[17]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의 교유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우의 12대손인 李元魯의 증언에 의하면 정탁이 오운에게 이황이 정리하고 필사한 『松齋詩集』 원본을 주었다고 한다.[18] 이때는 이황의 사후 14년인데 그동안 정탁이 이 시집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탁은 이황의 문인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오운이 간행한 『松齋詩集』을 보았을 것인 정구가 오운과 함께 『咸州志』의 편찬을 함께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咸州志』가 撰成된 것은 『松齋詩集』 간행 후 3년 뒤의 일이다.

3. 『松齋詩集』의 간행

3.1 간행 경위

이우가 남긴 시문이 많았으나 대부분 산일되어 이황이 수습할 즈음에는 이우가 지은 시집인 <關東錄>과 <歸田錄>만이 남아 있었고, 『東國史略』 2권이 있었다. 이 중에서 이황이 <關東錄>과 <歸田錄>을 모아 『松齋集』 1권으로 정리하면서 이황이 손수 필사하여 보관하였다. 이황이 직접 이우의 유고를 수습하고 정리한 이유는 이우의 독자인 李壽苓이 黃山察訪이라는 한미한 관직을 지낸 것으로 보아 문집을 수습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황이 이 일을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황은 『松齋詩集』과 <拾遺>를 직접 필사하여 1권으로 묶은 뒤에 종가에 보관하였다. 저간의 사정으로 보아 이황은 이 시집의 존재를 문하생들에게 여러 차례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의 제자들이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간행하려 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외증손인 오운의 생각이 남달랐을 것이다. 다음 정탁의 시가 이러한 사정을 증언한다.

---

17) 김순희, "吳澐과 『咸州志』," 『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475-498.
18) 李元魯, 『松齋先生續集附錄跋』. '竹牖吳公守中原時藥圃鄭貞簡公 貽書勸成 依手本刊行.'

www.kci.go.kr

中原牧伯喜公除　　공이 충주부사로 임명되니 기뻐라
大府財豐力有餘　　큰 고을엔 재물도 넉넉해 힘이 남으리
何幸松齋遺集在　　다행히 송재유집이 남아 있으니
募功能辦下車初　　임지에 가자마자 간행할 수 있으리[19]

이 시의 말미에 협서쌍행으로 '『송재집』이 아직도 인쇄되지 못했으므로 감히 힘을 모아 일을 시작한다'고 부기되어 있다.[20] 이 시는 『松齋先生文集』의 권2 말미에 정탁이 보낸 시 3수가 원문 그대로인 달필의 행서체로 새겨져 첨부되어 있다. 정탁이 보낸 시는 원래 칠언절구 3수였는데 『藥圃集』을 확인해 보니 두 번 째 시 한 수만 실려 있다.

시의 제목으로 보아 충주목사로 부임하는 오운을 송별하며 지은 시인데 축하의 말이나 이별을 서운해 하는 표현은 없고 3수가 모두 『松齋詩集』의 간행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이 시집의 간행이 이황 문하생들의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행을 담당한 오운의 발문을 살펴본다.

> 이 송재시집은 곧 퇴계선생이 일찍이 원집 중에서 고른 것이고 그 아래의 습유도 또한 선생이 손으로 정사한 것으로 한 권으로 합하여 종가에 보관하였는데 오랫동안 간행되지 못했다. 내가 지난 해 가을 충주부사로 부임하여 공무의 여가에 기술자를 모아 인쇄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 일이 끝났으니 형산의 박옥이 비로소 빛나게 된 것 같으니 다행이다.
>
> 그 시의 품격은 이미 당시의 인물인 신용개 상국의 『관동록』 발어에서 밝혀졌고 퇴계선생도 일찍이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지극히 부지런히 손수 초하였으니 금일의 간행이 어찌 다만 우리 자손들의 사사로운 다행이리오. 이제 약포 정탁 상국이 나에게 절구 3수를 보내어 자못 이 시집을 논하였으므로 뒤에 함께 새겨 놓아 후에 이 문집을 보는 자들이 그 전말을 알 수 있게 한다.
>
> 만력 갑신년 초여름 하순에 외종손 봉정대부 충주목사 오운은 삼가 기록한다.[21]

---

19) 『藥圃集』 권1, <奉別吳大源澐赴任中原>.

20) 위의 책, 같은 곳. '松齋詩集尙未壽梓 故敢勖以起功.'

21) 松齋 李先生詩集跋. '右松齋詩集 乃 退陶先生 嘗就元集中 所選 其下拾遺 亦先生手自淨寫 合爲一卷 藏之宗家 久未鏤板 澐去年秋 佩符中原 公務之暇 鳩工繡梓 閱月而功訖 荊璞始輝幸也 若其詩之品格 已盡於當時輩流 如申相國用漑之關東錄跋語 退陶先生亦

www.kci.go.kr

위의 기록에 오운이 『松齋詩集』을 간행하게 된 이유와 과정이 자세하게 밝혀졌다. 시집의 내용에 대해 품평하지 않고 申用漑의 발문으로 대신 설명한 것은 외손으로서의 예의를 지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2 체재 및 구성

『松齋詩集』은 全 3卷인데 제 1권은 『關東行錄』이라는 제목 하에 附原韻 포함 112 수의 시가 실려 있으며, 卷下에 二樂亭 申用漑(1463~1519)가 쓴 『關東跋』이 수록되어 있다. 제목으로 보아 이우가 강원감사로 재직하던 중에 지은 시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하게 금강산을 대상으로 지은 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우가 次韻詩의 경우 原詩를 수록해 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시집을 정리해 놓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시의 내용 중에서 해설이 필요할 경우 시의 마지막 글자 밑에 狹書雙行으로 注를 달아 놓았다. 예를 들면 『關東行錄』의 첫 번째 시인 『酒泉縣酒泉石姜晉山韻』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狹注가 있다.

> 민간에서 전하기를 어떤 사람이 돌을 옮기자 뇌우가 갑자기 일어나고 이어서 벼락이 쳐서 돌을 깨뜨려 세 조각이 되었는데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는 물에 들어가고 하나는 시냇가에 남았다 라고 한다.[22]

이것은 이우가 훗날 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 선비들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시문을 정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권1의 마지막에는 신용개의 『關東跋』이 신용개의 자필 원고 그대로 새겨져 있다. 『二樂亭集』을 살펴보니 이 글이 『書李明仲關東行錄跋』이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다.[23]

嘗謂 不可不傳世 至勤其手抄 則今日之刊行 豈特爲吾子孫之私幸 今藥圃鄭相國子精公送余三絶 頗論此詩 故幷刻之于後 使觀此集者 知其顚末云 歲萬曆甲申 孟夏下浣 外曾孫奉正大夫 守忠洲牧使 吾澐謹識.'

22) 『松齋詩集』 卷1, <酒泉縣酒泉石姜晉山韻>. '諺傳 有人遷石 雷雨暴作 隨以霹靂石破爲三 一上天 一入水 一在溪邊.'

www.kci.go.kr

제 2권은 『歸田錄』의 제목으로 附原韻 포함 121 수가 실려 있다. 제목으로 보아 이우가 강원감사에 체직된 이후 고향에 돌아와서의 감회를 읊은 것으로 생각된다. 권2의 처음 부분은 권1과 같은 행서체로 판각되었는데 중반 이후로는 필체가 다르며 인쇄상태도 매우 조악함을 알 수 있다. 필체를 보아도 적어도 3가지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松齋詩集』의 권위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권3으로 이어지고 부록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卷3은 『松齋詩集拾遺』인데 원래의 『松齋詩集』에는 3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原集에는 권2의 아래에 장을 바꾸어서 『松齋詩集拾遺』라는 제목 아래에 시를 수록했다. 속집을 간행하면서 제 1권과 2권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拾遺』를 3권으로 분류했다.

3권에는 拾遺와 疏,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습유에는 附原韻을 포함하여 25 수의 시가 실려 있다. 疏는 『自明疏』 1편 뿐이다. 이우는 중종반정 직후 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24] 그러나 반정이 있던 날 승지의 직분으로 궁궐에 있었던 이우의 행적에 대해 논란이 계속 있었다. 그러다 당시 환관이었던 金銀의 상소로 결국 훈록에서 삭제당했다.[25] 이때 이우는 46세(1514, 甲戌, 中宗 9)였다. 이에 불응하여 이우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것이 『自明疏』이다. 이 상소의 주요 내용은 반정 당일에 있었던 자신의 행적에 대한 변호이다. 이우의 증언에 의하면 연산군의 명으로 정세를 살피러 궁궐 밖으로 나가자 반정군이 이우에게 명하여 대비 윤씨에게 稟命을 받고 晉城大君을 옹립하여 즉위하게 하는 일 만을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였다.[26]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이우가 承旨의 벼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종은 이에 대해 '이제야 경의 상소를 보고 애매함을 알았다. 뒤에 조정에 문의하여 천천히 처리하도록 하겠다'[27]라 비답하고 이듬해 6월 안동부사로 임명

23) 『二樂亭集』 卷8, <書李明仲關東行錄跋>.
24) 『朝鮮王朝實錄』 중종 1년 9월 8일 기사.
25) 『朝鮮王朝實錄』 중종 9년 1월 18일 기사.
26) 『松齋先生文集』 卷3, <自明疏>. '旣已出外 內外阻隔 … (중략) … 將稟命大妃殿 亦不可無承旨 遂率臣同向景福宮 稟慈旨 後迎駕以入卽位時 侍衛隨行 臣之其日所爲 止此而已.'

www.kci.go.kr

하여 이우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附錄은 「年譜」, 「墓碣識」, 「墓誌銘」, 「墓碣銘」, 「跋」, 「附藥圃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年譜」와 「墓碣識」는 이황이 찬하였다. 이황은 연보에서 자신을 猶子라 하고 「墓碣識」에서는 「叔父戶曹參判府君墓碣識」라고 하여 숙질간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황의 「墓碣識」는 「墓誌銘」이나 「墓碣銘」과는 약간 달리 내용이 자세하다. 이것은 가족간의 일을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숙부의 행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이황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우가 松齋라는 호를 쓰게 된 이유와 시집에 대한 언급도 이 「墓碣識」에만 나타난다.

> 온계의 위에 先人이 손수 심은 소나무 숲이 있는데 부군께서 그 옆에 집을 짓고 거처하면서 고향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松齋라고 호를 지었다. 지은 詩文이 많았는데 다 흩어지고 <關東錄>과 <歸田錄> 만이 남아 있어 이제 합하여 「松齋集」 1권으로 만들었다. 또 「東國史略」 2권이 있다.[28]

이황은 여기에서 자신이 「松齋集」을 편찬하였음을 밝혔다. 비록 자신이 손수 필사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운이나 다른 사람이 증언하듯이 이황이 이우의 남은 시문을 필사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다. 그리고 이우가 편찬한 「東國史略」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추정해 보건대 이 저술의 영향을 받아 오운이 후에 「東史纂要」를 撰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운은 「東史纂要」의 <凡例> <纂輯諸書>에서 「東國史略」을 참고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관계를 볼 때 오운의 시집 간행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墓誌銘>은 李沆이 지었는데 이항은 1509년 경 영천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墓碣銘>은 崔淑生이 찬하였다. 발문은 오운이 지었다. 발문의 글씨는 행서체로

27) 「松齋先生文集」 卷3, <自明疏>. '批曰 今見卿疏 知曖昧 後問朝廷 徐當議處.'

28) 「松齋先生文集」 卷3, <墓碣識>. '溫溪之上 有先人手植松林 府君就其旁築室居之 以寓桑梓之感 因自號爲松齋 所著詩文多散逸 有關東錄歸田錄 今合爲松齋集一卷 又有東國史略二卷.'

www.kci.go.kr

오운이 직접 쓴 것을 판각하였다. 『竹牖全書』를 확인해 보니 여기의 발문과 달리 해서체로 판각된 것이다. 권말에 정포가 오운에게 보낸 송별시 3수가 발문과 같이 정포의 글씨 그대로 원문 그대로 새겨져 있다.

『松齋詩集』을 살펴보면 권1의 <關東行錄>은 행서체로 판각되어 있다. 오운이 밝힌 대로 이황이 직접 쓴 것을 새겨서 조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권2의 <歸田錄>은 중간에 다른 글씨체가 나타나는 것이 있으며, <拾遺>의 경우는 11장에 지나지 않으나 3가지의 필체가 보인다. 그리고 <自明疏>와 <年譜>, <墓碣識>, <墓誌銘>, <墓碣銘>, <跋>의 판각이 완전히 다르다. 특히 <年譜>는 판각이 정밀하지 못하고 인쇄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 다른 문장을 새긴 판본들도 조잡한 느낌을 준다. <跋>은 오운의 자필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려한 行草體로 쓴 이 발문은 松齋라는 호칭은 상란에 붙여 쓰고 다음 행부터는 한 글자를 내려 썼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우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松齋詩集』은 오운의 열의로 인해 간행되기는 했지만 진행과정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운이 이 작업을 1개월 여만에 마쳤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추정해 보면 오운이 판각 기술자를 동원해 이 시집을 上梓할 때 가장 솜씨 좋은 工人에게 『關東行錄』과 <歸田錄>을 새기도록 하고 <拾遺> 및 여타의 글들은 다른 공인에게 맡겨 판각하게 한 뒤에 이를 합하여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집 전체의 품격이 감소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續輯의 <後識>[29]를 쓴 李中麟도 저술가의 규례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30]

이러한 부족함이 없지 않으나 『松齋詩集』은 오운의 간행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것은 이 도서가 오운이 본격적으로 간행한 첫 번째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오운은 이 시집의 간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도서편찬 및 출판자로서의 면모를 구비하게 된다.

---

29) 續集의 말미에 李中麟이 쓴 <識>와 李元魯가 쓴 발문이 있는데 원집과 구분하여 편의상 <後識>와 <後跋>로 구분한다.

30) 李中麟, <後識>. '竹牖先生吳公 在中原時 以師門淨本 仍爲鋟梓 而雜著若附錄 甚闊略有似欠於著述家規例.'

www.kci.go.kr

4.『松齋先生文集』의 간행

4.1 간행 경위

속집의 간행을 주도한 인물은 이우의 12대손인 李元魯이다. 이원로는 간행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이제 중간할 때에 원집을 함께 改刊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조상의 시가 叔祖의 필치를 얻어 후대에 전해진 것은 실로 고대에 드믄 盛事이므로 원집은 舊本에 의해 重印하였다. 속집은 선현들이 남긴 기록에 나타난 것과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 수 십 여 수와 序와 記 각 1편인데 다만 태산의 털 끝 같아서 비록 한스럽지만 떨어진 금이나 조각 깃털 같은 것이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31]

이원로가『松齋詩集』의 중간 및 속집 간행을 실행한 해는 1900(庚子, 光武4)년[32]이니 오운이 원집을 간행한 이후 316년 뒤의 일이다. 이원로는 발문에서 밝힌 대로 여러 기록과 가장하고 있던 자료를 모두 모아 속집을 편찬하였다. 이원로는 이 원고에 대한 교정과『後識』를 이중린에게 부탁하였는데,[33] 이중린은 이황의 후손이다.

4.2 체재 및 구성

속집을 편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原集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34] 원집에서는 <關東行錄>이 권1, <歸田錄>이 권2였으며 <松齋詩集拾遺>라고

31) 李元魯, <後跋>. '今此重刊之日 或有並原集改刊之論 竊伏念以吾祖之詩 得叔祖之筆而傳後者 實寒苦之盛事 原集玆因舊本而重印 至若續集 則或出於先賢遺錄 後孫家藏 詩凡數十餘 序記各一 特泰山之毫芒 雖若可恨 而但零金片羽 不可以不傳也.'

32) 李中麟, <後識>에 '崇禎紀元後五庚子十月下澣 從後孫中麟 謹識'라 되어 있고, 이원로의 <後跋>에는 별도의 연도 표시가 없으나 이 해에 간행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李中麟, <後識>. '以近日之蒐摭者 另刊而追續之 托校讎之役於中麟 且使付一言以識.'

34)『松齋先生詩集目錄』. '原集旣無目錄 故今附于此.'

www.kci.go.kr

별도로 나누어 <自明疏>를 비롯하여 <年譜>, <墓碣識>, <墓誌銘>, <墓碣銘>, <跋>, <附藥圃詩>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속집에서 목록을 정리하면서 이를 권3으로 분류하고 시와 <自明疏> 외에는 <附錄>으로 구분하였다.

속집은 <松齋先生文集續集>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 후손들이 원집을 보완하여 속집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속집은 권1과 권2로 나뉘어 있다. 권1에는 35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시를 수록한 순서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후손들은 속집의 간행을 준비하면서 신중하게 자료를 수집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속집에 <題歸來亭>이라는 오언율시가 실려 있는데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狹書雙行으로 기록되어 있다.

> 歸來亭詩는 원집에도 실려 있는 것이 3수 있는데 이 한 수는 원집에 빠져 있고, 永嘉誌에 보인다.[35]

여기서 말한 원집은 <拾遺>를 말한다. 『永嘉誌』는 1608년(선조 41) 완성되어 1899년에 간행된 경상도 안동부의 邑誌이다. 이 읍지의 간행년도가 속집에 1년 앞서는 것으로 보아 이원로 등이 속집을 간행하기 직전까지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2에는 <虛庵遺集序> 1편과 <字民樓重修記>와 <環水亭記> 등 2편의 記文이 실려 있고, <附錄>이 있다. <虛庵遺集序>는 虛庵 鄭希良(1469~?)의 문집에 쓴 서문이다. 이우는 동년배이자 같이 교유했던 정희량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이우는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중에 역시 친구였던 東原守 金士衡과 함께 문집을 간행하고 서문을 쓰게 되었다. 『虛庵遺集』을 살펴보니 이 서문이 <舊序>라는 제목으로 맨 앞에 실려 있다. <舊序>에는 언제 이 서문을 지었는지 명시되어 있으나 속집을 판각하면서 이 부분은 누락시켰다.[36]

자민루는 경북 영주의 옛 東軒 북편에 있었던 누각인데 유실되었다. 이 記文

35) 『松齋先生續集』 卷1. '歸來亭詩 載於原集者三首 而此一首 逸於原集 見於永嘉誌'

36) <舊序>의 말미에는 '皇明正德六年辛未十一月 奮義靖國功臣 嘉善大夫 江原道體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靑海君李堣序'라고 되어 있어 이우가 이 글을 1511(辛未, 당시 43세)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말미에 이우의 10대 손인 李漢膺의 <附跋>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보면 당시에 이미 이 누각이 없어졌음을 증언하였다.

속집의 부록에는 <敎書>, <遺事>, <遺事摭錄>, <東史>, <陰厓日錄>, <海東源流>, <海東名臣錄>, <朝野會通>, <靑野漫輯> 등이 포함되어 있다. <敎書>는 이우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 왕이 내린 것으로 끝에 竝書로 '李荇行'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容齋 李荇(1478~1534)이 썼을 것이다.

<遺事>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우의 행적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遺事>는 이우의 종후손인 李彙載(1795~1875)가 지었다. 이휘재는 속집의 <後識>를 쓴 이중린의 조부이다. 따라서 이중린도 집안의 내력은 <遺事>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였다.[37] 속집의 간행을 준비하던 이원로가 수습해 두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휘재에게 유사를 부탁하여 완성된 것이다.

> 族姪 泰魯와 종손인 원로가 옛 상자를 열람하여 흩어지고 없어진 것을 수습하고 遺事를 지으면서 자손록과 묘갈에 갖추어 기록되지 않은 것을 통합하고 내외의 증손과 현손을 추가로 보충하여 서술하고서 나에게 교감할 것을 부탁하였다.[38]

따라서 이휘재는 유사에서 이우의 후손들에 대해 많은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원로가 속집의 편찬을 오랫동안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遺事>를 이휘재에게 부탁하여 준비한 뒤에 지속적으로 이우의 시문을 수습하여 마지막으로 이중린에게 교정 및 後識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문집의 출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정탁이 이 시집의 원본을 간직하고 있다가 오운에게 출간을 부탁한 내용을 기록한 것과 정탁의 시를 인용한 것이 있다.

「遺事摭錄」은 여타의 기록에서 이우에 관련된 것만을 모아 놓은 것인데, 여기에는 「海東名臣錄」, 「宣城邑誌」, 「鄭虛庵師友錄」 등이 원용되었다. 내용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

37) 「松齋先生續集」 <後識>. '吾家事 且有吾王考雲山府君所述遺事.'

38) 「松齋先生續集」 卷3, <附錄>, <遺事>. '族姪泰魯與宗君元魯 閱古篋 收拾散亡 作爲遺事 一統子孫錄 墓碣未備書 內外曾玄孫 追補而敍次之 請余勘過.'

www.kci.go.kr

속집의 부록에서 특이한 것은 <東史>, <陰厓日錄>, <海東源流>, <海東名臣錄>, <朝野會通>, <靑野漫輯>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내용이다. 검토해 본 결과 모두 중종반정이 일어나던 날의 급박한 상황과 관련된 것들로서 기사가 거의 동일하다. 玄默子 洪萬宗(1643~1725)이 편찬한 『東史』의 기사를 살펴보면 반정이 일어나던 날 밤에 연산군이 당시 승지였던 이우에게 밖의 상황을 알아보게 하여 이우가 부득이하게 나갔으나 곧바로 출입이 막혀 다시 궁궐로 돌아가지 못한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다.[39] 이것은 위에서 <自明疏>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결같이 이우가 승지의 신분으로 대비에게 품명하고 중종의 즉위를 수행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러한 기록은 이우의 일생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반정시 처신의 문제에 대한 증언으로서, 이에 대한 기사를 부록에 포함시킨 것은 후손들이 이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의도가 없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휘재도 <遺事>에서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속집의 권말에는 이중린이 찬한 『後識』와 이원로가 찬한 <後跋>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속집이 간행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선생의 시고는 우리 夫子께서 일찍이 친히 써서 보기에 편하게 하였는데 죽유 오선생이 충주목사로 재직할 때에 사문의 정본을 새겨 간행하였다. 그런데 잡저와 부록은 매우 제멋대로이고 거칠어 저술가의 규례에 흠이 있는 것 같다. 선생의 종손인 원로씨가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다가 옛 종이의 끊어지고 썩은 것 중에서 널리 구하고 모았으나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 겨우 한 帙을 만들었다. 부자께서 손으로 쓴 것은 삼가 공경하여 옛 것 그대로 따랐고 최근에 수집한 것은 별도로 간행하여 이으면서 나에게 교정을 맡기고 또한 後識를 부탁하였다.[40]

이중린은 이황이 이우의 시집을 수습하여 정사해 놓음으로써 시집 간행의 기반을 마련한 일과 오운이 간행한 사실, 이원로가 속집을 편찬하면서 원집은 그대로

39) 『松齋先生續集』 卷3, <附錄>, <東史>. '李堣不得已出 旣出 內外隔絶 無緣復入.'

40) 『松齋先生文集』 <後識>. '先生詩稿 吾夫子蓋嘗是正親手繕寫者 要以便覽 竹牖先生吳公 宰中原時 以師門淨本 仍爲鋟梓 而雜著若附錄甚闊略 有似欠於著述家規例 先生胄孫元魯氏 欲經理未遑 博采裒集於古紙斷爛之中 而存者無幾 僅成一帙 以夫子手正者 謹畏而仍舊焉 而近日之蒐摭者 另刊而追續之 托校讎之役於中麟 且使付一言而識.'

www.kci.go.kr

복간하고 속집을 합하여 「松齋先生文集」을 간행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말하였다. 가장 중요한 증언은 「松齋詩集」의 간행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추정해 볼 때 오운이 간행한 「松齋詩集」은 이우의 시집을 간행하였다는 공로는 인정받았으나, 판각과 인쇄의 조악함으로 인해 중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결 론

본고는 『松齋先生文集』을 검토하여 이 도서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 도서의 간행을 주도했던 竹牖 吳澐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본고의 텍스트인 『松齋先生文集』은 이우가 간행한 松齋 李堣의 시집인 『松齋詩集』과 이우의 12대 손인 李元魯가 편찬한 『松齋先生續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로는 원집을 중간하고 속집을 첨부하여 「松齋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이 해는 원집이 간행되고 나서 316년 후인 1900년이었다.

「松齋詩集」은 이우의 시집으로 이우의 조카인 退溪 李滉이 수습하여 손수 淨寫한 원본을 이우가 충주목사로 재직할 때 간행하였다. 오운은 이우의 외증손이었으므로 이 시집에 대한 애착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오운은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했는데 이때에 이 시집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동문수학하던 藥圃 鄭琢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오운에게 전달하여 이 시집이 간행되었다. 오운은 도서를 애호하여 여러 저술과 편찬서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이 시집도 오운이 없었다면 간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松齋詩集」의 인쇄상태를 검토해 보면 권1과 권2는 이황의 필체 그대로 판각하였으나 습유와 부록은 판각이 조악하고 인쇄도 정밀하지 못하여 저술가의 규례에 맞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오운이 1개월 여 만에 간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오운이 이 도서를 간행한 것은 의의 있는 일이지만 도서편찬가로서의 오운의 면모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점은 지적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松齋詩集』은 오운의 간행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것은 이 도서가 오운이 본격적으로 간행한 첫 번째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오운은 이 시집의 간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도서 편찬 및 출판자로서의 면모를 구비하게 된다.

후손인 이원로 등은 이우의 시문을 최대한 수합하여 속집을 편찬하고, 원집은 그대로 중간하여『松齋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이 문집의 간행으로 인해 이우의 저술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어 전해지게 되었다. 그 바탕에 오운의『松齋詩集』간행이 있었음은 중요한 사실이다.

앞으로도 오운이 직・간접적으로 편찬 및 간행에 관여한 도서에 대한 고찰이 계속되어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도서출판가로서의 오운의 실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松齋先生文集』.
『藥圃集』.
『二樂亭集』.
『朝鮮王朝實錄』.
『竹牖全書』.
『退溪集』.
허권수. “죽유 오운,”『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 세계』. 도서출판 亦樂, 2007.

www.kci.go.kr

www.kci.go.kr